

해외건설 인사이트 INSIGHT

2023 Vol.9

해외 프로젝트금융(PF) 및 투자개발형사업(PPP) 동향 및 시사점



1. 글로벌 PF 시장(Loans+Bonds) 동향
2. 글로벌 PPP 시장 동향
3. 시사점 및 제언



1. 글로벌 PF 시장(Loans+Bonds) 동향	1
- '22년 글로벌 PF 현황	1
- '23년 상반기 글로벌 PF 현황	8
2. 글로벌 PPP 시장 동향	10
- 개도국 대상 PPP 시장 동향	10
3. 시사점 및 제언	16

※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Global PF Review(Refinitiv), Global PPI 보고서(World Bank) 등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했음

2. 본 보고서의 데이터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공시 당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 지연이나 차후 공개 등으로 인해 늦게 반영되는 수치는 고려하지 않음



- '22년 PF 시장(대출+채권) 규모는 4,01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1% 증가함. 반면에, '23년 상반기 PF 시장(대출+채권) 규모는 1,762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6.3% 감소
 - '22년 PF 시장은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심화되었던 수요-공급 불균형의 완화가 필요한 분야 PF 규모 증가
 - '23년 상반기 PF 시장 규모는 건설비용 상승, 고금리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으나, 중동국가와 남미국가의 PF 규모는 증가
- '22년 개도국 대상 PPP 투자 규모는 91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3% 증가했으며, 개도국 PPP 중 저소득국 PPP 시장은 47억불을 기록, 전년 대비 31% 증가
 - '22년 개도국 대상 PPP 투자는 EAP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반등함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역별 성장 양극화가 예상
- 향후 시차를 두고 선진국 시장 수주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시장별 맞춤형 전략, 수주 모델별 고도화 준비 등이 요구됨
- 주요 중동국들은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PPP 관련 제도 및 사업환경을 조성 중이며, 주요 산유국들의 높은 Debt(PF) 비중의 투자개발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 우리 기업은 단순 도급사업 수주를 넘어 국내·외 선진 기업(기관)과 함께 유망 투자개발형사업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1 글로벌 PF 시장(Loans+Bonds) 동향

1. '22년 글로벌 PF 시장 동향

□ (총괄)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이하 PFI)에 따르면, 2022년의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시장(대출+채권)의 규모는 **4,01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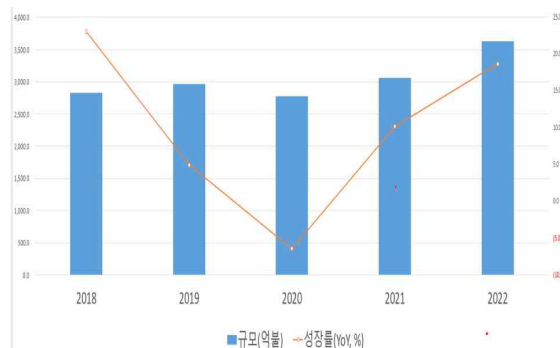
○ 대출은 전년 대비 18.7% 증가했으며, 채권은 전년 대비 51.6% 감소함

□ (대출) '22년 PF 대출의 규모는 **3,631억불**로 전년의 3,059억불 대비 **18.7% 증가**함. 건수 기준으로는 작년 918건에서 953건으로 35건 증가

○ PF 대출의 규모는 지난 5년 평균인 3,052억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최근 5년간 PF 대출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18	'19	'20	'21	'22
규모	2,826	2,966	2,776	3,059	3,631
건수	871	861	901	918	953
성장률 (YoY)	23.1	5.0	-6.4	10.2	18.7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 (대출 - 지역별)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이 1,495억불로 1위(41%), 미주지역이 1,438억불로 2위(40%), 아·태 지역이 697억불로 3위(19%)를 차지함

【'22년 지역별 Loans 전년 동기 비교 Table (단위: 억불, %)】

지역	2022년		2021년		성장률(YoY)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유럽·중동·아프리카	1,495	41	1,481	49	1
미주	1,438	40	959	31	50
아태	697	19	617	20	13
합계	3,631	100	3,059	100	19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4Q, Refinitiv

- (유럽·중동·아프리카) '22년 PF 대출 금액은 1,495억불로 전년의 1,481억불 대비 1% 증가
 - 서유럽(영, 독, 프 등)의 대출 금액은 작년 741억불에서 1,047억불로 41% 증가
 - 동유럽(러, 튀르키예, 우크라 등)의 대출 금액은 작년 273억불에서 73억불로 -73% 감소
 - 중동 등 지역의 대출 금액은 작년 467억불에서 374억불로 -20% 감소
 - (미주) '22년 PF 대출 금액은 1438억불로 전년 959억불 대비 50% 증가
 - 미국 등 북미지역의 대출 금액은 전년 671억불에서 1,157억불로 72% 증가
 -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지역은 전년 209억불에서 234억불로 12% 증가
 - (아·태) '22년 아·태지역 PF 대출 금액은 697억불로 전년 311억불 대비 13% 증가
 - 오스트랄아시아(호주, 뉴질랜드 등)의 대출 금액은 전년의 311억불에서 434억불로 39.5% 증가
 - 남아시아(인도 등)의 대출 금액은 108억불로 전년 81억불 대비 33.3% 증가
 - 남동아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대출 금액은 76억불로 전년 57억불 대비 33.3% 증가
- o (대출 - 국가별) 미국은 1,040억불로 1위(29%)를 차지함. 그 뒤는 호주(413억불, 11.3%), 영국(250억불, 6.9%) 등이 따름

['22년 국가별 주요 PF 대출 순위 (단위: 억불, %)]

순위	국가	규모	점유율	사업 건수	성장률(YoY)
1	미국	1,040	29	204	67
2	호주	413	11.3	70	35
3	영국	250	6.9	40	7
4	독일	196	5.4	34	221
5	사우디	181	5.0	6	-46
6	이태리	152	4.2	37	235
7	브라질	123	3.4	94	12
8	프랑스	123	3.4	69	52
9	스페인	121	3.3	67	11
10	캐나다	116	3.2	22	147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4Q, Refinitiv

- 미국은 산업, 오일&가스, 교통 등 다양한 공종의 프로젝트를 위해 1,040억불 규모의 PF*를 성사시키며 국가별 대출 순위 1위(29%)를 기록
 - * Foundry Jv Holdco LLC(142억불, 산업, 인텔 애리조나 파운드리 목적), Venture Global Plaquemines(95억불, 오일&가스, Plaquemines Parish LNG 수출 터미널), New York Transp Dvlp Corp(66억불, 교통, 뉴욕 JFK 공항 新 터미널 등)
 - 호주는 Ichthys LNG(Ichthys LNG proprietary limited), 시드니 공항 운영·관리(Sydney Airport Finance Company proprietary limited) 등 프로젝트를 위해 413억불 규모의 PF Loan을 성사시키며 국가별 대출 순위 2위(11.3%)를 기록함
 -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전자통신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PF 대출을 성사시키며 각각 3위(6.9%), 4위(5.4%), 6위(4.2%)를 기록함
 - * 영국 : CityFibre Broadband Roll Out Project(47억불) 등, 독일 : GlasfaserPlus Germany Fibre To The Home (FTTH) Project(22억불) 등, 이탈리아 : Open Fiber 100Mbps Broadband Network Project(81억불) 등
 -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출 순위 5위(5.0%)를 기록했으나, 작년 335억불에서 181억불로 46% 감소
- o (대출 - 공종별) 발전 분야가 1,265억불로 공종별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오일&가스(717억불), 교통(568억불), 전자통신(430억불), 산업(219억불) 등이 따름
- 발전 분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전체 시장 비중의 35%를 차지함. 주요 차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안정화 관련 사업 수행 목적 SPC임
 - 오일&가스 분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가하며 '21년 -16% 역성장에서 벗어나 일부 반등함.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및 LNG 수출터미널 관련 수요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교통 분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20년 코로나19로 인한 -38% 역성장 이후 꾸준히 증가함. 미국, 호주 등 공항 중심 노후 교통인프라 개선 관련 투자가 진행되었음
 - 전자통신 분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며 큰 폭으로 성장함. 영, 독,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서 광섬유 통신망(FTTH), 데이터 센터 등 투자가 증가

- 산업 분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하며 타 분야와 달리 코로나19 등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함. 미국의 오크틸로 반도체 제조 시설 관련 PF가 동 분야 내 높은 비중(65%)을 차지함

* 지난 5년 산업 분야 성장률(전년대비, %) : '18, -2.5 → '19, 66 → '20, 10 → '21, 27 → '22, 54

['22년 공종별 PF Loans 전년 비교 Table (단위: 억불, %)]

공종	2022년		2021년		성장률(YoY)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발전	1,265	35	1,293	42	-2
오일&가스	737	20	578	19	24
교통	568	16	412	7	38
전자통신	430	12	206	14	109
산업	219	6	142	5	54
레저	186	5	154	5	21
석유화학	107	3	144	5	-26
광산	104	3	69	2	51
상하수도	21	1	54	1	-61
폐기물처리	11	0	3	0	267
농업	1	0	-	-	-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22년 공종별 주요 PF 대출 차주 및 관련 프로젝트 (단위: 억불)]

공종	차주	프로젝트명	금액(순위)
발전	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캐나다)	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 Transmission Line Project	56(6)
	Abu Dhabi Offshore Power Transmission Co Ltd Llc(UAE)	HVDC TRANSMISSION LINES LIGHTNING PROJECT	33(11)
오일&가스	ARAMCO GAS PIPELINES CO(사우디)	Aramco Gas Pipelines Company Acquisition Project	138(2)
	VENTURE GLOBAL PLAQUEMINES LNG LLC(미국)	Plaquemines LNG Facility	95(3)
교통	NEW YORK TRANSPORTATION DEVELOPMENT CORPORATION(미국)	JFK International Airport New Terminal One PPP Project	66(5)
	Sydney Airport Fin Co Pty Ltd(호주)	SYDNEY AIRPORT NEW TERMINAL INFRASTRUCTURE PROJECT	32(12)
전자통신	OPEN FIBER SPA(이탈리아)	Open Fiber 100Mbps Broadband Network Project	81(4)
	CITYFIBRE INFRASTRUCTURE HOLDINGS PLC(영국)	CityFibre Broadband Roll Out Project	47(8)
산업	FOUNDRY JV HOLDCO LLC(미국)	Intel Ocotillo 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y Expansion Project	142(1)
	ALUMINUM BAHRAIN LINE 6 EXPANSION(바레인)	ALUMINUM BAHRAIN LINE 6 Expansion PROJECT	12(47)

* 출처: Infrastructure 360, Refinitiv

○ (대출 - 주간사별) 주간사별 1위는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으로 194억불의 PF 대출을 주선함. 인수기관별 1위는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Inc이며 169억불의 PF 대출을 인수함

- 한국산업은행(KDB)은 51.2억불의 Loan 금액을 주간하며 18위를 차지함

【상위 대출 주간사(Mandate Arrangers) (단위:억불)】

순위	은행명	금액	건수
1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94	182
2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176	148
3	Societe General	149	116
4	Credit Agricole CIB	143	143
5	Santander Corp & Invest Bkg	128	109
6	ING	124	99
7	Mizuho Financial Group	122	83
8	BNP Paribas SA	121	83
9	Bank of China Ltd	76	55
10	Natixis	75	61
18	Korea Development Bank	51.2	29
합계		3,631	953

【상위 대출 인수기관(Bookrunners) (단위:억불)】

순위	은행명	금액	건수
1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169	90
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49	124
3	Societe General	122	53
4	Credit Agricole CIB	108	64
5	Santander Corp & Invest Bkg	105	63
6	ING	91	42
7	Mizuho Financial Group	88	42
8	BNP Paribas SA	85	34
9	Standard Chartered PLC	68	13
10	Natixis	66	42
11	CIBC World Markets Inc	51	27
합계		2,447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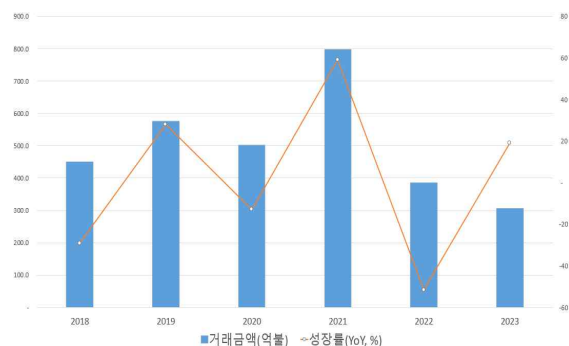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4Q, Refinitiv

□ (채권(Bonds)) Bonds 시장은 전년대비 52% 감소한 386억불을 기록함. 건수 기준으로는 167건에서 96건으로 71건 감소함

○ PF 채권의 규모는 지난 5년 평균인 543억불 대비 41% 가량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

【최근 5년 PF 채권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규모	451	577	502	798	386
건수	125	138	107	167	96
성장률 (YoY, %)	-29	28	-13	59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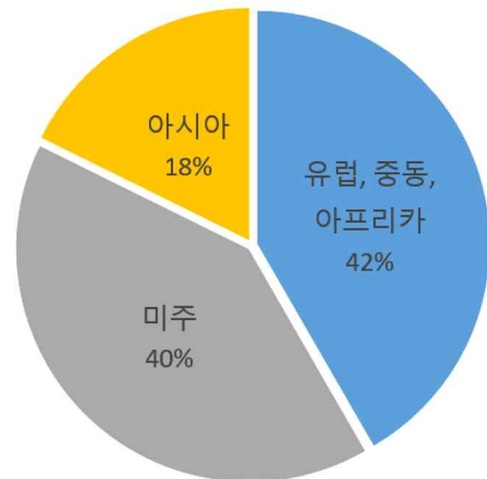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 o (채권 - 지역별) 유럽·중동·아프리카는 160억불(42%)을 기록하며 1위, 그 뒤를 미주지역이 156억불(40%)을 기록하며 2위, 아시아지역이 68억불(18%)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

【'22년 공종별 PF Bonds 전년 비교 Table(좌) 및 지역별 비중(우) (단위: 억불, %)】

구분	'22년		'21년	
	금액	성장률 (YoY)	금액	성장률 (YoY)
유럽·중동·아프리카	160	-22	204	84
미주	156	-67	472	22
아시아	68	-43	119	51
합계	386	-52	79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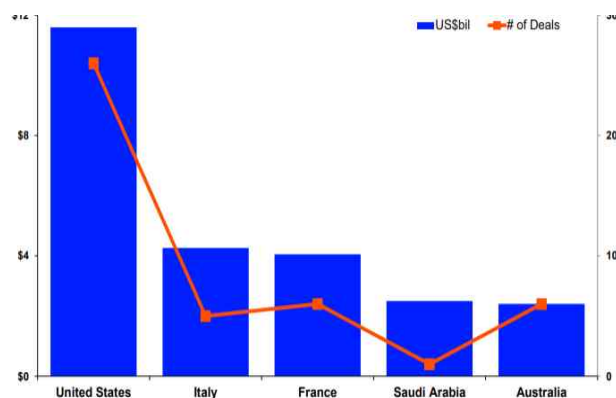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 o (채권 - 국가별) 미국은 총 116억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며 작년에 이어 국가별 채권 1위(30%)를 기록함. 그 뒤를 이탈리아(42억불, 11%), 프랑스(40억불, 10%), 사우디(25억불, 6%), 호주(24억불, 6%) 등이 뒤따름

- 미국은 총 116억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며 작년에 이어 국가별 채권 1위(30%)를 기록함. 주요 프로젝트는 Port Arthur Ethylene Cracker and Polyethylene Plant Project(10.6억불), NextEra Transmission Portfolio Project(10억불), Mountain Valley Pipeline (6.5억불) 등임

【'22년 PF Bonds 국가별 순위 (단위: 10억불, 개수)】

순위	국가	규모	비중	성장률 (YoY)
1	미국	116	30	-58.7
2	이탈리아	42	11	7.7
3	프랑스	40	10	81.8
4	사우디	25	6	177.8
5	호주	24	6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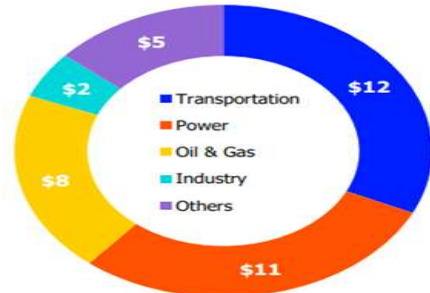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4Q, Refinitiv

- o (채권 - 공종별) 교통 분야 채권 규모가 120억불로 1위를 차지함. 그 뒤로 발전 분야(110억불), 오일&가스 분야(50억불), 산업 분야(20억불) 등이 따름

【'22년 PF 채권 공종별 변화 추이(좌) 및 '22년 공종별 비중(우) (단위 : 억불)】

구분	'22년		'21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발전	110	2	200	2
오일&가스	80	3	270	1
교통	120	1	200	2
석유화학	-	-	70	3
산업	20	4	-	-
기타	50	-	60	4
합계	380	-	800	-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4Q, Refinitiv

- o (채권 - 발행사별) Credit Agricole CIB이 38.6억불(24건)로 1위를 차지함. 그 뒤를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37.9억불, 28건), JP Morgan(30.1억불, 18건) 등이 위치함

【'22년 발행사별 Bonds League Table (단위 : 억불, %)】

순위	회사 (전년 순위)	금액	비중	건수
1	Credit Agricole CIB (10)	38.6	10	24
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3)	37.9	9	28
3	JP Morgan (2)	30.1	8	18
4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9)	24.1	6	16
5	Citi (1)	20.1	5	18
6	Goldman Sachs & Co (12)	16.1	4	9
7	HSBC Holdings PLC (6)	14.4	4	14
8	BNP Paribas SA (8)	14.3	4	12
9	Mizuho Financial Group (11)	12.7	3	12
10	Santander Corp & Invest Bkg (5)	12.3	3	18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 o (DFI 지원) '22년 국제개발금융기관(이하 DFI¹⁾)의 PF 지원은 총 123억불을 기록, 전년 대비 42%가 감소함. 올해는 DFI의 PF 지원 중 선진국 관련 PF 지원 비중이 증가

【최근 3년간 DFI 지원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년		'21년		'22년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금액	194	110	160	50	60	63
총 투자액	304		210		123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1) PFI는 국제개발금융기관(DFI)을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개발 및 양국간 경험 확대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IFC, ADB, IDB 등 MDB(다자개발은행), KEXIM 등 각국 ECAs(수출금융기관), USIDFC 등 개발금융공사 등을 지칭함

2. '23년 상반기 글로벌 PF 시장 동향

□ (총괄)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이하 PFI)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시장의 규모는 1,762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함

○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했으며, 채권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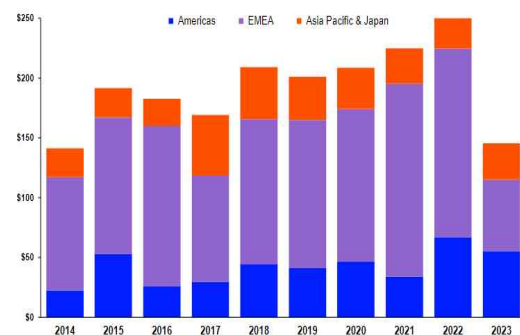
□ (대출(Loans)) '23년 상반기 PF 대출의 규모는 1,455억불로 전년 동기의 1,624억불 대비 10.4% 감소함. 건수 기준으로는 작년 381건에서 406건으로 25건 증가

○ 전년동기대비 하락했으나, 21년도 상반기의 1,245억불 대비로는 16.9% 상승

* 최근 상반기 PF 규모 및 성장률(억불, %) : 21.상, 1,245(0.7) → 22.상, 1,624(30.4) → 23.상, 1,455(-10.4)

【최근 PF 대출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18	'19	'20	'21	'22	'23.상
규모	2,826	2,966	2,776	3,059	3,631	1,455
건수	871	861	901	918	953	406
성장률 (YoY)	23.1	5.0	-6.4	10.2	18.7	-10.4*



주) '23.상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QoQ) -10.4 역성장함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 (대출 - 지역별)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이 595억불로 1위(40.9%), 미주지역이 555억불로 2위(38.1%), 아·태 지역이 305억불로 3위(21%)를 차지함

- (EMEA) 독일 등 데이터센터와 NEOM 녹색수소 프로젝트(84억불)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64.7억불 대비 -8% 역성장

- (미주) 미국의 역성장과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국가의 성장이 병존하며 전년 동기 625억불 대비 -11.3% 역성장

- (아·태) 호주 시장의 역성장에 따라 전년동기(351억불) 대비 -13%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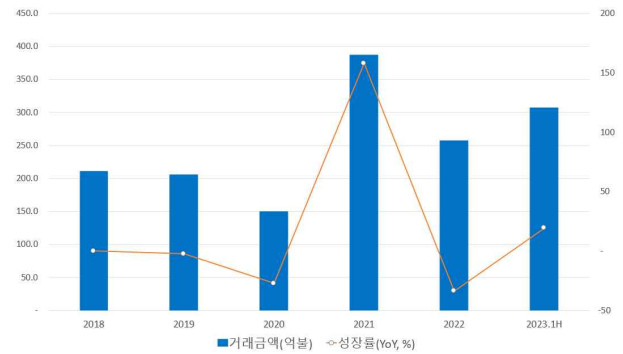
○ (대출 - 공종별) 발전 분야가 572억불(39.3%)로 공종별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오일 & 가스(283억불, 19.5%), 전자통신(232억불, 19.5%), 석유화학(153억불, 10.5%) 등이 따름

- 석유화학과 상하수도 분야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 반면에, 다른 공종은 모두 감소

□ (채권(Bonds)) Bonds 시장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307억불*을 기록함. 건수 기준으로는 60건에서 47건으로 13건 감소함

【최근 PF 채권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上
규모	451	577	502	798	386	307
건수	125	138	107	167	96	47
성장률 (YoY)	-29	28	-13	59	-52	19*



주) '23.上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QoQ) 19% 증가함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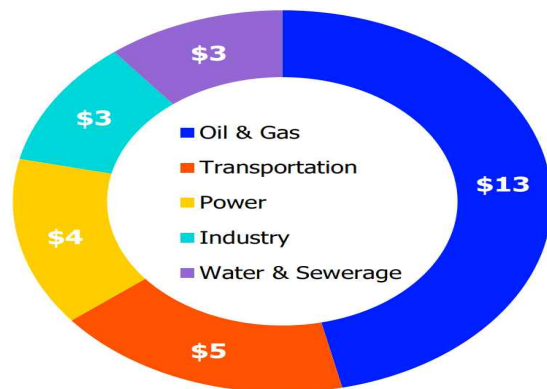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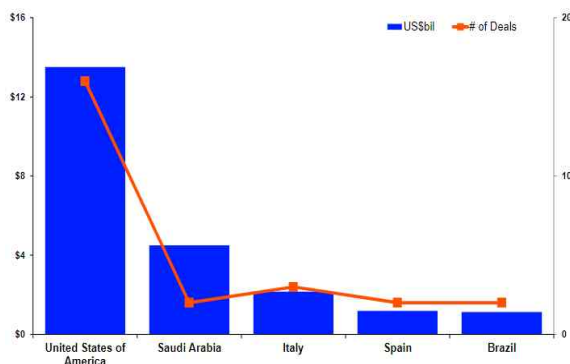
○ (채권 - 지역별) 미주지역이 157억불(51%)을 기록하며 1위, 그 뒤를 EMEA이 126억불(41%)를 기록하며 2위, 아시아지역이 24억불(8%)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함

- 미국은 총 135억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며 국가별 1위를 기록함. 주요 프로젝트는 Calcasieu Pass LNG Export Terminal Project(40억불), Intel Ocotillo 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y Expansion Project(23억불), Borstar Bay 3 Project(14억불) 등임

○ (채권 - 공종별) 오일·가스 분야가 130억불(42%)로 공종별 1위를 차지함. 그 뒤를 교통(52억불, 17%), 발전(47억불, 15%), 산업(37억불, 12%) 등이 따름

- 오일·가스 분야와 산업 분야의 성장이 돋보임. 반면에, 교통, 발전 등 분야는 역성장

【'23년 상반기 PF 채권 상위 5개 국가(좌) 및 세부 공종별 비중(우) (단위: 10억불, %)】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2 개도국²⁾ 대상 PPP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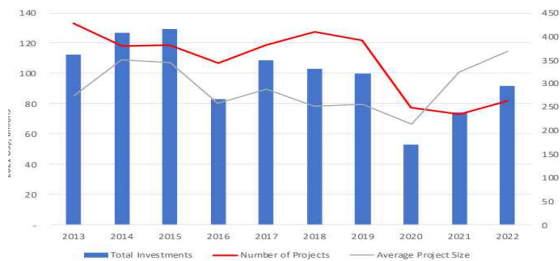
1. 개도국 대상 PPP 시장 동향

□ (총괄) '22년 개도국 대상 PPP 투자 규모는 917억불로 전년 대비 20.3% 증가함.
'20년 코로나19로 인한 -52.7% 역성장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

○ 투자 규모는 지난 5개년(2017~2021) 평균 대비 4%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5년 PPP 총투자금 및 프로젝트 건수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규모	900	967	457	762	917
건수	355	409	252	240	263
성장률 (YoY)	-3.5	-7.4	-52.7	66.7	20.3



* 출처 : 2022 PPI Annual Report, World Bank

○ (지역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EAP)이 433.7억불로 1위(47.3%)를 차지, 라틴아메리카·카리브지역(LAC)은 243.3억불로 2위(26.5%), 남아시아 지역(SAR)이 138.7억불로 3위(15.1%)를 차지함. 그 뒤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가 48.6억불(5.3%) 유럽·중앙아시아(ECA)가 33억불(3.6%), 중동·북아프리카(MENA)가 19.7억불(2.1%) 순임

- EAP, LAC, SAR 지역은 큰 폭으로 성장*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줌. 반면에, ECA 지역과 SSA 지역은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여주며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임

* '22년 PPI 지역별 성장률(전년대비, 비중) : EAP(54.5), LAC(30.9), SAR(59.6), SSA(-6.5), ECA(-77.9), MENA(217.7)

- 투자액 기준 상위 5개국은 중국(33%), 브라질(19%), 인도(13%), 인도네시아(5%) 및 베트남(5%)이며, 동 국가들의 투자액 합은 전체 PPP 투자 규모의 75%를 차지함

2) 본고에서 개도국은 World Bank의 분류기준에 따른 저소득국(Low income), 저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을 의미함

- (EAP) 동 지역의 투자 규모는 433.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5%, 지난 5개년 평균 대비 18% 상승함. 중국은 303억불의 투자 실적을 기록하며 동 지역의 상승세를 견인함. 베트남 등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 투자액 기준 상위 10개국 안에 드는 등* 회복이 가속화됨
* '22년 PPI 투자액 기준 아세안 소속 국가 순위 및 비중 : 베트남(4위, 5%), 인도네시아(5위, 5%), 필리핀(6위, 3%)
- (LAC) 동 지역의 투자 규모는 243.3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9%, 지난 5개년 평균 대비 16% 상승함. 브라질은 총 LAC 투자의 74%를 차지, Growth Acceleration Program(PAC) 등으로 인해 민간분야 투자액이 증가함
- (SAR) 동 지역의 투자 규모는 138.7억불로, 전년 대비 59.6% 상승함. 이중 인도는 지난 10년간 최대 규모 실적을 기록하며 총 SAR 투자의 86%를 차지함. 이는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등 정부의 인프라 부양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됨
- (SSA) 동 지역의 투자 규모는 48.6억불로, 전년 대비 -6.5%, 지난 5개년 평균 대비 -15% 역성장함. 한편, 지난 10년간 동 지역 내 프로젝트 건수는 발전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ECA) 동 지역의 투자 규모는 33억불로 전년 대비 -77.9% 역성장했으며, 지난 10년간 최저 규모 실적을 기록함.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투자 실적이 없었기 때문임.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UAE, 사우디가 투자한 풍력발전 관련 19억불의 투자 실적을 기록함
- (MENA) 동 지역의 투자 규모는 19.7억불로 전년 대비 217.7% 증가함.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지난 5년 평균인 31억불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역별 PPP 투자 추이('21년~'22년) (단위: 억불, %)】

지역	2022년		2021년		성장률(YoY)
	금액	비중	금액	비중	
EAP	433.7	47.3	280.8	36.9	54.5
LAC	243.3	26.5	185.8	24.4	30.9
SAR	138.7	15.1	86.9	11.4	59.6
SSA	48.6	5.3	52	6.8	-6.5
ECA	33	3.6	150	19.7	-77.9
MENA	19.7	2.1	6.2	0.8	217.7
합계	917.2	100	761.6	100	20.4

* 출처: 2022 PPI Annual Report, World bank

- (공종별) 교통분야 투자는 621억불(67.7%)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함. 그 뒤는 에너지 259억불(28.2%), 상·하수도 23억불(2.5%), 폐기물 관리 7.9억불(0.9%), ICT 5.4억불(0.6%) 순임
- (교통) 동 분야 투자 규모는 621억불로 전년 대비 42.1% 상승함. 봉쇄 조치, 공급망 혼란 등으로 투자 규모가 감소했었으나 도로 분야 관련 투자가 늘어나며 큰 폭 반등함. 이는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자 규모이며, 지난 5개년 평균 대비 52% 상승한 수치임
- (에너지) 동 분야 투자 규모는 259억불로 전년 대비 15.6% 상승함. 친환경 에너지 관련 투자는 에너지 투자 중 81%를 차지하며, 지난 5개년 평균인 63% 대비 크게 상승함. LAC, MENA 및 SAR 지역에서는 동 분야 투자 규모가 늘었으나, EAP(-33%)와 ECA(-29%) 지역에서는 큰 폭 감소함
- (상·하수도) 동 분야 투자 규모는 23억불로 전년 대비 -76.8% 감소함. 지난 5개년 평균 대비로 보면 -48% 감소함. 가장 큰 상·하수도 분야 투자는 Rio de Janeiro Water & Sanitation Bloc 3 관련 9억불 규모의 투자임
- (폐기물 관리) 동 분야 투자 규모는 7.9억불로 전년 대비 393.8% 상승함. 하지만 이는 지난 5개년 평균 37억불 대비 하락한 수치임. 폐기물 관리 투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짐바브웨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장 큰 규모의 투자는 짐바브웨의 Pomona Waste Management 관련 3.4억불 규모의 투자임
- (ICT) 동 분야 투자 규모는 5.4억불로 작년 0억불 대비 큰 폭 증가함. 하지만 이는 지난 5개년 평균 11억불 대비 하락한 수치임. ICT 투자의 대부분은 콩고민주공화국, 요르단, 몰디브, 나이지리아, 필리핀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됨

【 공종별 PPP 투자 추이('21년~'22년) (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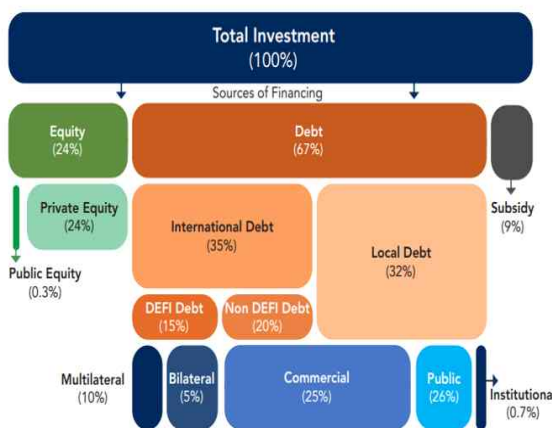
지역	2022년		2021년		성장률(YoY)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통	621	67.7	437	57.4	42.1
에너지	259	28.2	224	29.4	15.6
상·하수도	23	2.5	99	13.0	-76.8
폐기물 관리	7.9	0.9	1.6	0.2	393.8
ICT	5.4	0.6	-	-	-
합계	917.2	100	761.6	100	20.4

* 출처: 2022 PPI Annual Report, World bank

- o (재원 구조) 개도국 PPP 자금조달 비중은 Debt(대출) : Equity(자본금) = 67 : 24의 비율을 보임. 전년도(2021)의 자금조달 비중(64 : 35)에서 대출이 3%p 증가했으며, 자본금은 11%p 감소함. 한편, 정부 보조금은 9%를 기록함
- 대출을 보면, 국제 대출은 35%로 3%p 감소, 지역 대출은 32%로 6%p 증가. 주로 LAC와 SAR 지역의 상위 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³⁾에서 지역 대출이 활발함
- 국제은행의 활발한 활동 등으로 공공부문의 비중은 26%로 전년대비 9%p 증가함. 반면에, 상업금융(25%)과 MDB 등 DFI⁴⁾의 비중(15%)은 각각 3%p, 4% 감소
- 자본금을 보면, 민간부문 자본금의 비중은 24%로 전년 대비 11%p 감소했으나 여전히 비중이 높음. 공공부문 자본금의 비중(0%)은 전년대비 0.3%p 증가
- 보조금을 보면, 정부 보조금은 9%로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관련 직접지원으로 전년대비 8.1%p 증가

【'22년(좌) 및 '21년(우) PPP 투자 재원 구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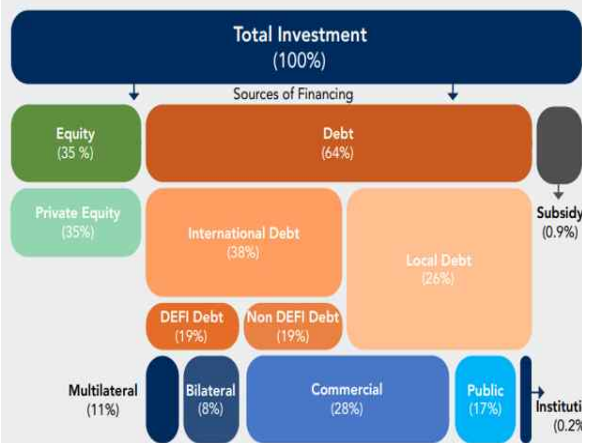
Figure 23: Sources of Financing for Infrastructure Projects with Private Participation in EMDEs in 2022



* All figures as a percentage of total investment Source: PPI Database, World Bank, as of January 2022.

* 출처 : '21~'22 PPI Annual Report, World Bank

FIGURE 13 Sources of Financing for Infrastructure Projects with Private Participation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in 2021 *



* All figures as a percentage of total investment Source: PPI Database, World Bank, as of January 2022.

3) World bank 분류기준에 따르면, 상위 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은 1인당 GNI가 \$4,466 ~ \$ 13,845에 속한 국가로서, 중국,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가를 지칭함

4) 본고에서 World Bank의 DEFI(개발수출금융기관)는 ADB 등 MDBs, KEXIM 등 ECAs, USIDFC 등 개발금융공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편의를 위해 DFI로 통일함

- o (사업주 비중) 투자 약정이 체결된 총 263개의 프로젝트 중 300억불(34%, 114건)의 자금이 외국 사업주에 의해 조달되었음. 외국 사업주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프로젝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지난 3년간 외국인 사업주 자금조달 비중(%) : '20, 59 → '21, 44 → '22, 34

- 외국 사업주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프로젝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6%)이며, 그 뒤는 UAE(4%), 프랑스(3.9%), 베트남(2.7%), 사우디아라비아(2%), 노르웨이(1.8%) 순임. 작년의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음

* '21년 외국 사업주 자금조달 프로젝트 내 국가 순위 : 1위 : 독일(11%), 2위 : 일본(6%), 3위 : 스위스(5%), 4위 : UAE(3%)

- 외국 사업주의 참여 비중이 높은 지역은 LAC 지역과 SSA 지역으로 각각 83건 중 45건(54%), 37건 중 30건(81%)의 프로젝트가 외국 사업주에 의해 자금 조달됨. LAC 지역은 영국의 참여율(54%)이 높았고, SSA 지역은 프랑스의 참여율(81%)이 높았음

- 국내 사업주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프로젝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는 중국(31.5%)이며, 그 뒤는 브라질(18.8%), 인도(14.8%) 순임. 3개국 모두 작년*에 비해 국내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였음

* '21년 국내 사업주 자금조달 프로젝트 내 국가 순위 : 1위 : 중국(25%), 2위 : 브라질(10%), 3위 : 인도(8.3%)

['22년(좌) 및 '21년(우) PPP 사업주 비중 (단위 : %)]

Figure 25: Proportion of International and Local Sponsors in Low- and Mid-Income Countries with Private Investment Commitment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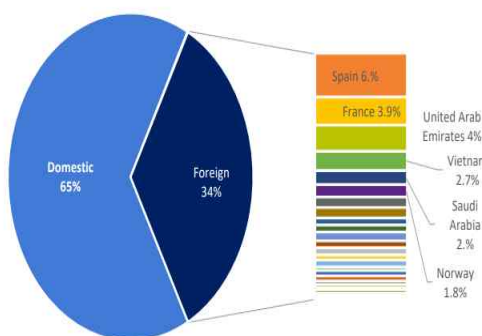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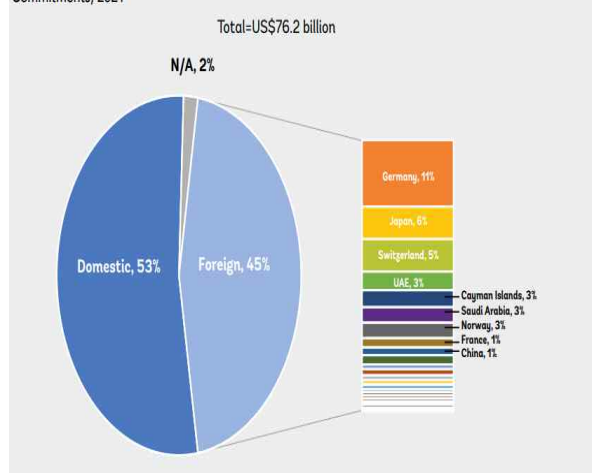


FIGURE 2

Proportion of Foreign to Local Sponsor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with Private Investment Commitment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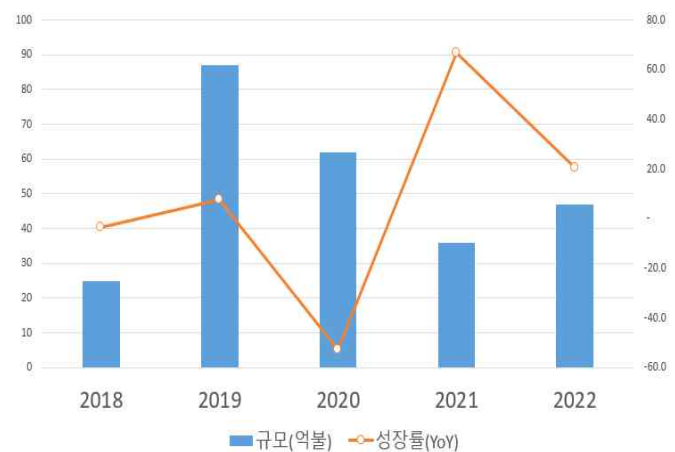


* 출처 : '21~'22 PPI Annual Report, World Bank

- (저소득국⁵⁾ 대상 PPP 시장 동향) '22년 개도국 PPP 중 저소득국 PPP 시장은 47억불(30건)을 기록, 전년 대비 31% 증가함. 하지만 지난 5개년 평균(6.1억불)을 22% 가량 하회하는 수치임
 - 국가별로 보면, 세네갈이 12억불(27%)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함. 그 뒤를 라오스(10억불, 22%), 방글라데시(9억불, 21%), 네팔(8억불, 18%) 순임. 해당 4개국의 사업(에너지, 교통 중심)이 전체 저소득국 PPP 투자의 87%를 차지함
 - 세네갈 사례를 살펴보면, 세네갈 정부는 두바이 항만운영회사인 DP WORLD와 함께 은다야네 신항만 개발을 위해 11억불을 투자함. 이는 단일 민간 투자로서는 세네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신규 항만 및 인근 국제공항 주변 경제특구 개발도 포함되어 있어 인프라 개발 수요의 꾸준한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음
 - 저소득국 PPP 투자의 평균적인 DFI* 의존도를 고려하였을 때 저소득국 PPP 투자 및 사업 개발 등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보증 등 DFI 역할이 중요함

【최근 5년 저소득국 PPP 추세 (단위 : 억불,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규모	25	87	62	36	47
건수	15	29	30	20	30
성장률 (YoY)	-68	248	-29	-42	31
DFI 의존도	67	-	67	60	40



주 1. DFI 재정 의존도 : DFI 지원 최빈국 PPP 프로젝트 수 / 총 최빈국 PPP 프로젝트 수

2. '19년 DFI 의존도는 보고서 내 정확한 수치가 제공되지 않음

* 출처: '18~'22 PPI Annual Report, World Bank

5)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의 원조를 받는 18개의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을 뜻함. 18개 최빈국은 세네갈, 라오스, 방글라데시, 네팔,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토고, 부르키나파소, 몰디브,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베냉, 레소토,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말리를 지칭함

3 시사점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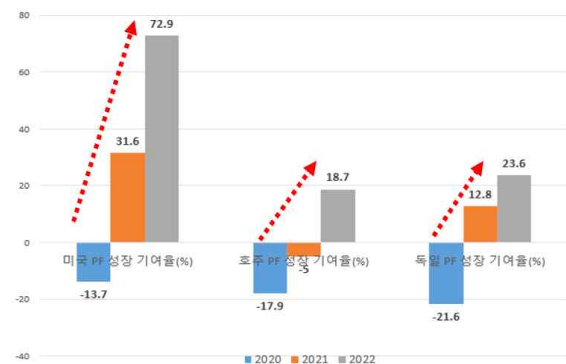
1. 시사점

□ '22년 PF 시장(대출+채권)은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심화되었던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가 필요한 분야 PF 규모 증가

○ (선진국 시장 중심 성장)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 시장이 성장에 기여하며 PF 대출 규모가 크게 성장

【PF 대출 규모 및 성장 기여도(좌) 및 PF 대출 상위 3개국 성장률(우) (단위 : 억불, %)】

구분	'20	'21	'22
규모	2,776	3,059	3,631
성장률 (YoY)	-6.4	10.2	18.7
미국 성장 기여율(기여도)	-13.7 (0.9)	31.6 (3.2)	72.9 (13.6)
독일 성장 기여율(기여도)	-21.6 (1.4)	12.8 (1.3)	23.6 (4.4)
호주 성장 기여율(기여도)	-17.9 (1.1)	-5.0 (-0.5)	18.7 (3.5)



주 1. A국의 PF 성장기여율(%) = (A국 PF 대출 증감액 / PF 대출 증감액) × 100

2. A국의 PF 성장기여도(%) = (A국 PF 대출 증감액 / 전년도 PF 대출 금액) × 100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자체 계산

○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코로나 19, 에너지 위기 등으로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되었던 분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22년에는 전자통신 및 산업 분야의 성장세가 돋보임

【'22년 PF Loan 기준, 주요 공종 변화 및 원인 (단위 : 억불, %)】

공종	금액	성장률(YoY)	주요 증가 이유
오일&가스	717	24	미국, 호주 중심 LNG 수출터미널 관련 수요
교통	568	38	미국, 호주 시장 중심 노후 교통인프라 개선 수요
전자통신	430	109	유럽 시장 중심 광섬유통신망(FTTH), 데이터센터 수요
산업	219	54	미국 투자 유도 정책에 따른 제조업 리쇼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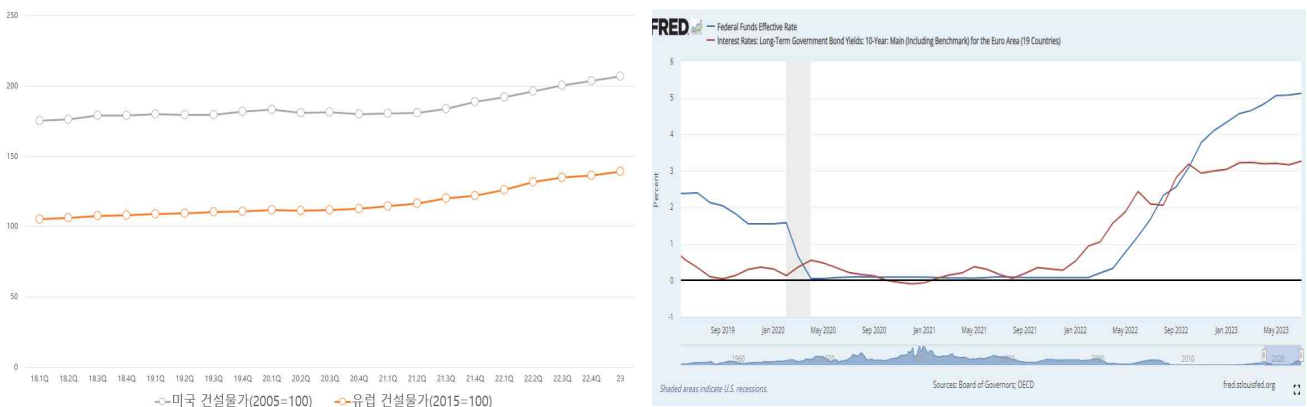
주) '22년 기준, OECD 주요국 FTTH 보급률(%) : 한국(88.04), 일본(84.77), 평균(37.7), 이탈리아(18.67), 영국(11.12), 독일(9.17)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Refinitiv

□ '23년 상반기 PF 시장(대출+채권) 규모는 건설비용 상승, 고금리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중동국가와 남미국가의 PF 규모는 증가

○ (건설비용 상승 및 고금리 지속) 공사비용과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상승세가 장기화 될 경우 시차를 두고 PF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미국 및 유럽 공사비용 지수(좌) 및 금리 수준(우) (단위 : %)]



* 출처 : US Census Bureau, Eurostat

○ (중동 및 남미국가 반등) 중동국가와 남미국가의 PF는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오일&가스, 석유화학* 관련 PF 기반으로 증가

* (중동) 사우디 네움 그린수소 프로젝트(67억불, 석유화학), UAE Borouge 4 Project(31억불, 석유화학) 등
(남미) 브라질 Almirante Tamandare 및 MERO 4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 설비 Project(총 32억불, 오일&가스) 등
멕시코 TGNH(Huasteca 천연가스 운송회사) Southeast Gateway Pipeline Project(23억불, 오일&가스) 등

【'23년 상반기 국가별 주요 PF 대출 순위 (단위: 억불, %)]

순위	'23년		
	국가	규모	성장률(YoY)
1	미국	407	-23
2	영국	124	-2
3	호주	115	-56
4	독일	103	-16
5	프랑스	84	24
6	사우디	67	294
7	브라질	65	150
8	UAE	42	50
9	일본	41	46
10	멕시코	38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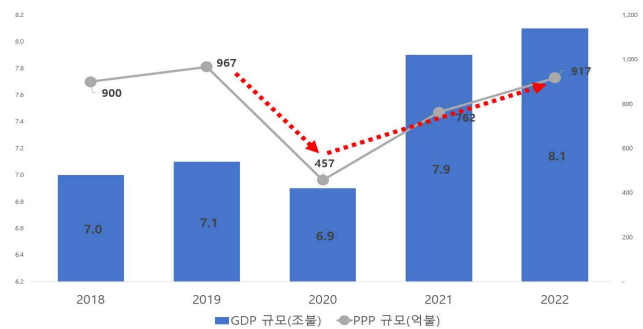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2Q 2023, Refinitiv

□ '22년 개도국 PPP 대상 투자 규모는 동아시아·태평양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반등함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임. 한편, 지역별 성장 양극화가 예상됨

○ (경기 반등 및 인프라 투자 증가) 6개 지역의 GDP 평균은 8.1조불로 전년 대비 3.0% 증가함. EAP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등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함.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 공급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 규모 역시 증가

【6개 지역 GDP 성장률 및 PPI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조불·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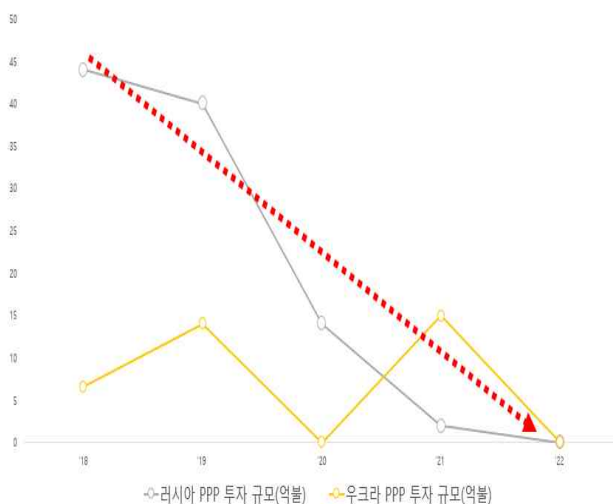
구분	'18	'19	'20	'21	'22
규모	7.0	7.1	6.9	7.9	8.1
성장률 (YoY)	5.5	1.7	-3.2	15.2	3.0
PPP 규모	900	967	457	762	917



* 출처 :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 23,08.28)

○ (성장 양극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PPP 금액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재정 지출을 동반한 사회간접자본 공급수요가 있는 인도, 브라질 등 국가는 성장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PPP 투자 규모 추이】



* 출처 : World Bank PPI Database(검색일 : 23,08.28)

【주요국 인프라분야 투자 계획】

국가	주요 내용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4천억불 규모 투자 예정(~'25년)이며 그중 도로 인프라는 3,500억불 투자 예정 - 도로 등 교통인프라는 프로젝트 비용 관련 60(민간) : 40(정부) 방식을 선호 -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100% 허용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총 1,630억헤알(약 490억불, '22년 기준) 투자 예정 - 운송물류(1,130억헤알), 고속도로(474억헤알), 철도(287억헤알), 항만(123억헤알), 공항(60억헤알) 등 투자 전망 - 높은 부채로 인해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방식(양허, PPP 등) 선호

* 출처 : Invest India 등

2.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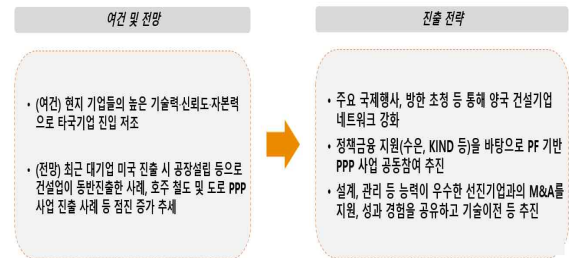
□ PF 시장이 에너지 위기, 투자유도 정책(IRA 등), 지정학적 긴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증가한 점을 볼 때, 향후 미국 등 시장의 수주가 시차를 두고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선진국 맞춤형 전략이 요구됨

*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미국과 EU는 ‘국내 및 동맹국 내 생산’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들 국가로 전략적 분야(반도체 등) 중심으로 FDI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23.04, IMF)

【최근 5년간 태평양북미 시장 수주액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19	'20	'21	'22	'23.上*
규모	5.6	5.4	39	45	53
성장률 (YOY)	-45.6	-3.5	619.8	15.3	16.9
비중	2.5	1.6	12.9	14.6	29.3

【지역별 진출전략 중 유럽·미국·호주 시장 전략】



* 출처 : 국토교통부

주 1. 해외건설수주통계 기준 태평양·북미 시장이며, 구성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괌 등임
2. 23.上 통계는 '23.6.30까지 수주통계이며 전년동기대비(QoQ) 기준임

*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OCIS) 등

□ 최근 그룹사 공사*, 기술력·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수주한 사례, 외국건설사(현지, 글로벌)와 파트너십을 통한 합작 수주 사례 등 다변화된 수주 모델별 고도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음

* '23년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美 공장 발주 공사 56.4억불 수주(상반기 수주의 32.6%)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최근 우리 기업 참여 주요 PF 사례 (단위 : 억불)】

국가	공사명	우리 기업	수주액	총액	특징	시차
미국	GOLDEN TRIANGLE POLYMERS PLANT PROJECT FEED, EPC	DL이앤씨	5.2	85	FEED 연계한 미국 내 첫 플랜트 프로젝트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평가	3년
호주	NORTH EAST LINK PPP TOLL ROAD PROJECT EPC, O&M	GS 건설	23.8	118	빅토리아 주 최대 규모 도로터널 PPP 사업, 외국건설사와 합작 수주	3년
호주	WESTCONNEX PROJECT PHASE 1-1B 등	삼성물산	24.2	168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교통 인프라 PPP 사업,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	4년

주) 시차 : Refinitiv database 내 공지일과 해외건설협회에 상황 통보된 계약일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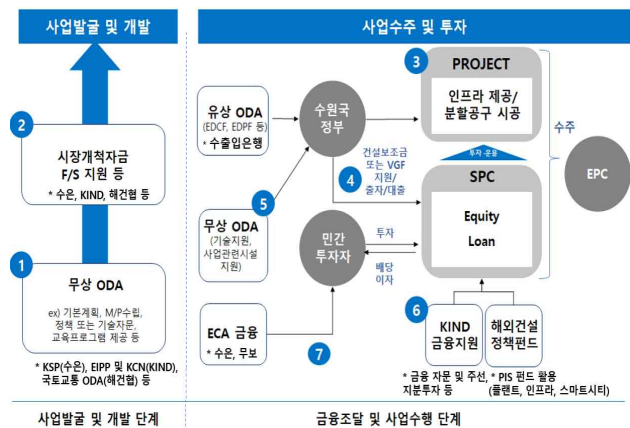
* 출처 : Refinitiv,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OCIS) 등

- 주요 신흥국 등이 포함된 글로벌 PPP 시장에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 협력 전략을 통한 진출은 우리 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음. 이 경우 수주 전주기에 걸친 수은, 무보, KIND 등의 수주 금융지원 활용이 중요함

【'22년 우리 기업 참여 중저소득국 PPP 사업 사례 (단위: 억불)】

국가	공사명	기업	총액	특징
베트남	Hai Lang LNG to Power Project	한국 남부발전, 한국 가스공사, 한화 에너지	23.6	코리아 컨소시엄 제안 사업, LNG 터미널·가스복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통합 PPP 사업
UAE	HVDC Transmission Project	한국 전력, 삼성물산	38	한국전력, 큐슈전력(일본), EDF(프랑스) 컨소시엄, 초고압 직류 해저송전망(HVDC) 건설·운영

【주요 금융지원정책과 결합한 복합금융 구조(안)】



주) World Bank 기준, UAE는 '22년 기준,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y)으로 분류

* 출처 : Worldbank PPI Database, 각사 공식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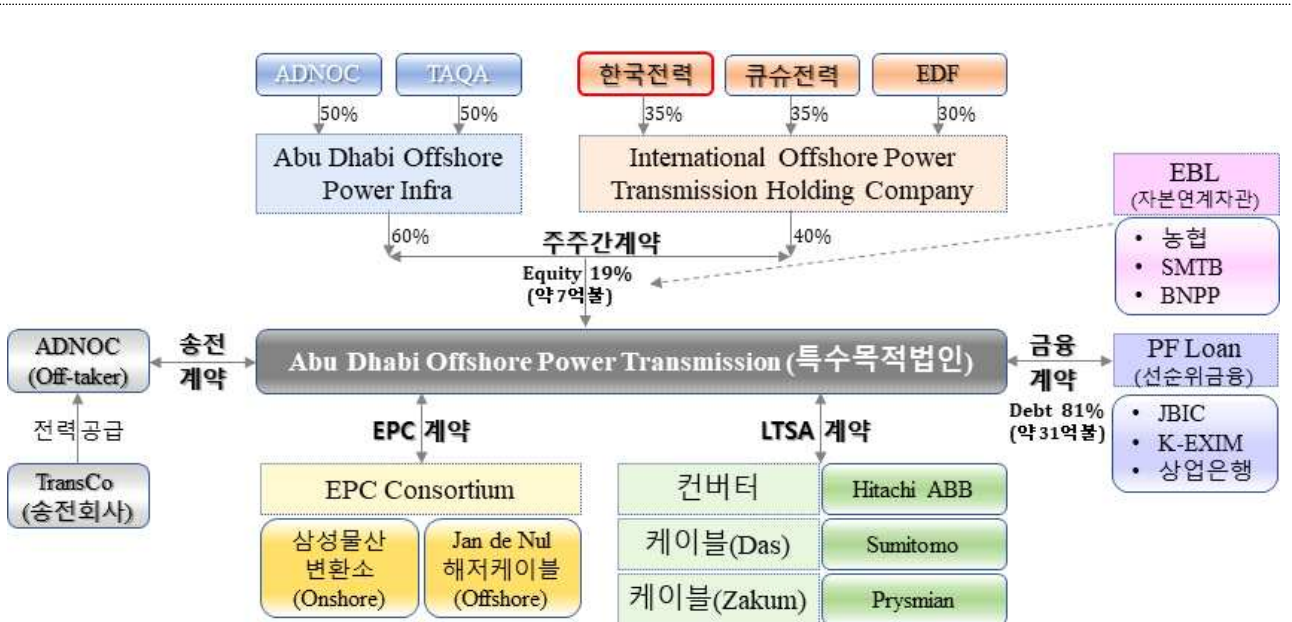
- 주요 중동국들은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PPP 관련 제도* 및 사업** 환경을 조성 중임. 참고 사례(21p)와 같이 높은 Debt(PF) 비중의 투자개발형 사업이 추진될 전망임에 따라, 우리 기업은 단순 도급사업 수주를 넘어 국내·외 선진 기업(기관)과 함께 유망 투자개발형사업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사우디) 국립민영화센터(NCP) 설립('17.8) 및 민간부문참여법(Private Sector Participation Law) 제정('21.3)

(UAE)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두바이('15), 아부다비('19) 각각 PPP법 제정

** NCP는 200여개의 PPP사업을 관리 중이며, '23년에는 49건 이상의 PPP 사업 발주 예정('23.3.8, 사우디 재무부 장관 간담회)

【※참고 : UAE HVDC Transmission(해저송전망) Project 사업구조】



- 사업명 : UAE HVDC Transmission Project(Project lightning)
 - 공사기간/사업규모 : 총 38억불 / '21.12. ~ '25.12. (운영·관리 : ~2060.12)
 - 사업개요
 - (개요) 총 3200MW 용량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해저 HVDC 송전 시스템(송전링크 및 변환시설) 구축
 - (목적) 아부다비전력공사(AD Power)의 자회사 아부다비 TRANSCO가 운영하는 육상 전력망을 해저케이블로 연결해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의 해상석유시설에 전력을 공급
 - 특이사항
 - 주요 중동국 중 하나인 UAE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기반의 PPP 사업으로 총 금액 중 81% (약 31억달러)의 차입금을 조달하는 구조의 사업임
 - 공공의 전문성,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팀 코리아 사례로 한국전력(사업개발 및 운영)·한국수출입은행(금융)·삼성물산(건설) 연계*하여 수주함
- * 한국전력은 입찰과정 전반 주도,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 수은은 전체 차입금의 37.4%에 해당하는 11.6억불의 본 PF, 삼성물산은 중동지역 내 각종 플랜트 건설 경험을 살려 EPC 수주(22억불)

* 출처 : PFI 등



- 국문 자료

국토교통부. 2021.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한국남부발전. 2023. 남부발전-가스공사-한화에너지, 베트남 가스발전 및 LNG 터미널 사업 수주
 한국전력. 2023. UAE HVDC 해저송전망 사업 계약 체결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2023. '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및 전망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유럽실. 2023. 중동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당면한 애로 및 전략
 주 브라질 대한민국대사관. 2023. 브라질 인프라 시장 동향

- 영문 자료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April)
 IMF. 2023. Fragmen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Hits Emerging Economies Hardest
 Invest India. 2023. Roads&Highways
 OECD. 2023. Growth of mobile data usage continues – but at a slower pace
 PFI. 2018~2022.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1Q~4Q)
 PFI. 2021~2022. Yearbook
 PFI. 2023. Global Infrastructure Report
 World bank, 2018~2022.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Annual Report
 NCP, National Center for Privatization & PPP Overview and pipeline March 2023
 US Census Bureau, Construction Price Index

- 데이터베이스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Construction_producer_price_and_construction_cost_indices_overview)
 Refinitiv(舊 Thompson Reuters) (<https://workspace.refinitiv.com>)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World Bank PPI Database(<https://ppi.worldbank.org/en/customquery>)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https://ocis.go.kr/#tab1>)